

# 2022 광주를 빛낸 그대들이 스포츠영웅



19일 광주시체육회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해단식과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내빈, 수상 유공자들이 2023 광주체육의 비상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해단식·2022 유공자 시상식

### 전국체전 종합 12위 견인 입상 종목단체·선수 표창 오상봉 '올해의 감독'·나수경 '올해의 지도자' 선정

광주시체육회가 2022년 한해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광아 광주시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선수,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제103회 전국체전 해단식에서는 종합 12위를 달성하는 데 공을 세운 입상종목단체, 감독 코치, 선수에게 포상품(금)을 수여했다. 양궁과 궁도가 종합 1위, 스쿼시가 종합 2위, 승마와 산악이 종합 3위를 차지해 오상봉을 받았다. 윤일모 근대5종 전무이사과 박한술 스쿼시 지도자가 입상 감독 및 코

치를, 문건영(광주체고, 체조), 신용규(조선이공대, 레슬링), 광주대(여자단체, 농구)가 각각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팀)를 대표해 포상금을 받았다. 육상 100m허들 여자 정혜림(광주시청)은 5연패를 차지해 연패상을, 양궁 유망주 오예진(광주여대)은 4관왕을 달성해 다관왕상을 받았다. 2022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및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한 전웅태(광주시청)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감독은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는 나수경 광주시체육회 에어로빅 지도자와 이명열 월곡FC U-12클럽 축구

지도자가 선정돼 수상했다. 광주시공도협회와 광주시출범기협회는 전국체전 상위 입상과 종목 활성화 등의 공을 인정받아 올해의 단체로, 소프트볼 BMP클럽이 꾸준한 생활체육 활동으로 올해의 클럽으로 선정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2년 광주체육을 빛낸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훈훈하고 뿌듯함을 느낀 한해였다"며 "내년에는 시민과 선수들을 위해 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김광아 회장직무대행은 "올 한해 광주체육은 여느 해보다도 쉽지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시민과 선수 모두에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배드민턴 정휘민·수영 박근효 베를린스페셜올림픽 태극마크

광주장애인 배드민턴 정휘민(선광학교 중3)과 수영 박근효(풍암중 3년)가 '2023베를린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19일 "최근 열린 2023년 베를린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대표팀 선발식에서 정휘민과 박근효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밝혔다. 정휘민은 초등학교 때 광주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며 처음 배드민턴을 접한 뒤 2019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인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제15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올해 11월에 열린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5년째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근효는 올해 열린 제8



정휘민 박근효 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에서 은메달 1개, 제13회 충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동메달 1개 등을 획득했다. 특히 11월에 열린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는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은 패럴림픽, 농아인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장애인 올림픽이다. /박희중기자



황선우가 18일 열린 2022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터치패드를 찍은 후 기록을 확인하며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손가락 부상·8번 레인'에도 아시아신기록

### 황선우, 0.35초차 세계新도 깼다

물살을 가를 때마다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써 온 황선우(19·강원도청)는 세계 기록도 깰 수 있을까. 황선우는 지난 18일 호주 멜버른 스포츠 앤드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황선우는 지난 16일 열린 이번 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영자로 나서 자신이 작성한 종전 아시아 기록(1분40초99)을 이틀 만에 1초27이나 단축하는 역을 펼치고 대회 2회 연속 우승도 달성했다. 2018년 중국 항저우 대회에서 다나스 랍시(리투아니아)가 세운 종전 세계 기록(1분40초95)도 갈아치웠다. 무엇보다 황선우의 이날 기록은 파울 비더만(독일)이 2009년 경영 월드컵에서 작성한 세계 기록(1분39초37)에는 불과 0.35초가 뒤진 좋은 기록이었다. 황선우도 경기 후 기록을 확인하고는 놀라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황선우는 예선에서는 1분42초44의 기록으로 출전선수 46명 중 8위를 차지

하고 결승 대열에 겨우 합류했다. 이 탓에 결승에서는 8번 레인에 배정됐다. 가장 바깥 레인인 1, 8번 레인은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아 선수들이 꺼리는 레인이다. 오른쪽으로만 호흡하는 황선우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황선우는 예선 경기에서 마지막 터치를 하다 오른손 중지를 다친 터였다. 손가락이 많이 붓고 통증이 심했으나 진통제를 맞고 결승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그런데도 2위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1분40초79)에게 1초07 앞서서 압도적 레이스를 펼쳤다. 포포비치는 올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세계적 선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세계 기록 경신도 결코 허황한 꿈은 아닌 듯하다. 비더만이 세계 기록을 세운 2009년은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폴 리우레탄 재질의 전신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던 때다. FINA가 2010년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뒤로는 황선우의 기록이 가장 빠르다. 쇼트코스 자유형 200m에서 1분40초 벽을 깬 선수도 비더만 이후 황선우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 메시의, 메시에 의한, 메시를 위한 대관식



## 아르헨, 프랑스 잡고 36년 만의 우승

### 메시, 커리어 유일한 '약점' 월드컵 우승 5번 도전 만에 '골든볼'...전설의 반열에 최다 출전·최다 공격포인트 대기록 속출

세계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혀 온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마침내 조국 아르헨티나를 FIFA 월드컵 정상에 올려놓으며 진정한 '전설'로 남기 위한 최대 속제를 풀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19일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에서 열린 1978년과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메시는 최근 15년간 가장 세계 축구를 지배해 온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다. 세계 최고 축구 선수의 상징인 발롱도르를 7차례나 받고 소속팀에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회, 프랑스 리그 1 1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회, 코파 아메리카(2021년) 1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경력, 특히 메이저대회 우승 예기만 나오면 어깨를 펴 수 없는 처지였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19일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골든볼을 품에 안은 채 월드컵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시는 2006년부터 월드컵에 출전해왔으나 이전까진 2014 브라질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 준우승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카타르 대회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메시에게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직접 이끌고 이런 평가를 불식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자신을 위해 갖춰진 무대에서 메시는 이름에 걸맞은 활약으로 '라스트 맨스'를 스스로 빛냈다. 36년 전 원반소로 우승을 이끌었던 마라도나처럼, 아르헨티나의 '구세주'로 우뚝 서며 '역대 최고 선수'(The Greatest Of All Time-GOAT)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메시는 이날 출전과 득점으로 월드컵 역사에 남을 수많은 개인 기록도 작성했다. 이날 메시는 자신의 26번째 월드컵 경기에 나서며 로타어 마테우스(독일)를 앞질러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달성했다. 골을 넣으면서는 단일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6강전, 8강전, 준결승, 결승전에서 모두 득점한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이번 대회 기간 가브리엘 바티스투타(10골)를 뛰어넘는 아르헨티나 선수 월드컵 본선 득점 단독 1위에 오른 그는 결승전을 포함해 이 기록을 13골로 늘렸다.



이번 대회 7골 3도움 등 월드컵에서 개인 통산 13골 8도움을 기록, 21개의 공격포인트를 작성한 메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6년 이후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골에 관여한 선수로도 등극했다. 아울러 메시는 발롱도르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월드컵을 모두 품에 안은 9번째 선수이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하면 월드컵, 발롱도르, UCL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획득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도 세웠다. 1982년 월드컵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이 제정된 이후 한 선수가 두 차례 수상한 것도 메시가 최후다. /연합뉴스

## 키움 이정후, MLB 공식 진출 선언

2023시즌 후 포스팅으로 입단 첫해인 2017년부터 타율 0.324로 활약한 이정후는 올해까지 6시즌 통산 타율 0.342를 때린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다. 이정후는 KBO의 통산 타율 집계 기준인 3천 타석을 넘긴 타자 가운데 타율 1위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이정후 선수의 도전 의지를 응원하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면서 "올해 구단 업무는 종료한 상황이라, 내년 초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